

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(4.23일) 논의 결과

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

- 금융권 노사정은 아직 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,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권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.
- 특히,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,
 - 「코로나19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」, 「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」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금융권 노사정이 보다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또한,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충하는데 금융권 노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, 이는 곧 금융산업의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.
 - 이를 위해,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,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(finance) 수단을 통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·확대하고,
 - 노사 공동 공익재단*을 통해 ①금융이해력 제고, ②취약계층의 신용상승·자산형성 지원 및 안전망 강화, ③노동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(☞ 별첨 참고)

* 금융산업공익재단 :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·정책금융기관 등의 사용자,
사무금융우분투재단 : 사무금융노동조합과 제2금융권 등의 사용자

② 금융권 노사정 사회적 대화 1년의 평가 및 향후 방향

- 금융권 노사정은 작년 5월 상호간 공식적인 소통채널이 처음으로 마련된 이후 지난 1년 간 주기적인 대화를 지속한 결과,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,
- 앞으로도 금융권 노사정이 상생하면서 금융산업이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·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다짐하였습니다.
- 이를 위해,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, 금융산업 환경 변화 등 거시적 담론은 노사정 협의채널에서 지속하고,
- 정책협의체*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, 현안별 실무협의를 통한 현장 소통 등 노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* 디지털금융협의회, 녹색금융 T/F 등

③ 최근 금융권 현안 관련

- (금소법 시행) 금융권 노사정은 금소법의 제정 취지인 금융 소비자 보호 가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, 금소법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특히, 금융당국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,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(주52시간제) 금융권 노사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제 시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제도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(미얀마 정세) 금융권 노사정은 최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현지진출 금융사의 직원 안전 확보 및 애로사항 점검, 실시간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.